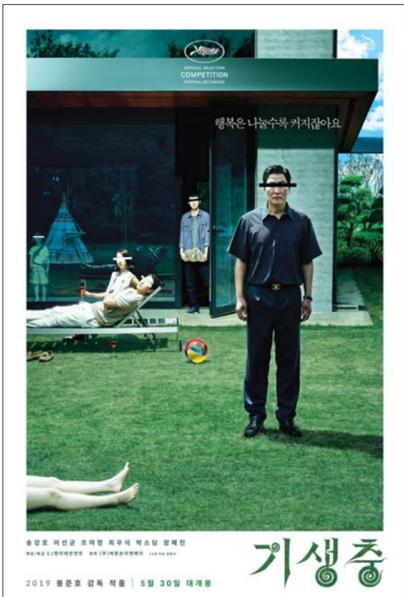


# ‘기생충’, 외국어영화상...韓 최초 골든글로브 수상

“자막의 장벽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 즐길 수 있을 것”

봉준호 감독, 한국어 소감...감독상·각본상은 아쉽게 불발



한국 영화 '기생충' (감독 봉준호)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 감독상과 각본상은 아쉽게 품에 안에 못했지만, 한국

영화 최초로 북미 영화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다.

‘기생충’은 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5월 오후 5시) 미국 LA 베벌리힐스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 7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Golden Globes Awards)에서 감독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

감독상과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기생충’은 이날 외국어 영화상을 타는 데 성공했다. 한국 작품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기생충’은 이번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놓고 ‘더 페어웰’ ‘레미제라블’ ‘페인 앤 글로리’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등과 경쟁했다.

봉준호 감독은 외국어 영화상 수상 직후 한국어로 “자막의 장벽을 뛰어 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멋진 세계 영화 감독들과 후보에 올라 그 자체로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감독상 후보로는 ‘1917’의 샘 멘데스, ‘조커’의 토드 필립스,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코세지,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등도 이름을 올렸고, 샘 멘데스 감독이 트로피를 거머 쥐었다. 각본상은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돌아갔다.



이날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는 봉준호 감독 외에 ‘기생충’ 출연 배우들인 송강호 조여정 이정은도 참석했다.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할리우드의신기자협회(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영화, TV 시상식이다. 영화의 경우 뮤지컬, 코미디 및 드라마 부문으로 나뉘어 작품상, 감독상, 남녀 주연상 등을 시상한다. 특히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아카데미 시상식 한 달 전에 열리고, 아카데미 수상 결과와도 비슷할 때가 많아 ‘아카데미 전초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생충’은 지난해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

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전세계 영화제 및 시상식에서 수상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미평론가협회에서 작품상, 각본상을 받는 등 미국 내 여러 협회 및 조합상을 휩쓸고 있으며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개최된 호주아카데미 시상식(AACTA)에서는 여러 경쟁자들을 제치고 작품상의 영예까지 안았다.

‘기생충’은 제90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구 외국어 영화상)과 주제가상 등 2개 부문 예비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외 작품상, 감독상 최종 후보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7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한국시각 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5월 오후 5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 감독상과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까지 3개 후보에 이름을 올린 ‘기생충’의 주역들인 (왼쪽부터)이정은, 조여정, 송강호가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MEGABOX 광주첨단점

- 1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 2관 백두산
- 3관 시동,
- 4관 백두산
- 5관 미드웨이
- 6관 시동
- 7관 백두산
- 8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캣츠
- 9관 백두산, 캣츠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 1관 시동
- 2관 미드웨이
- 3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 4관 백두산
- 5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미드웨이, 눈의 여왕, 프린스 코기
- 6관 겨울왕국2, 백두산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

